

북한매체 보도 동향

1. 벼농사

씨뿌리기

- 씨뿌리기 준비를 빈틈없이 (로동신문 3.15)
 - 숙천군 운정농장에서 씨뿌리기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.
 - 기사장을 비롯하여 작업반에 내려간 일꾼들은 씨뿌리기에 필요한 소농기구와 바람막이바자(방풍원), 부식토 등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씨뿌리기 일정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있음.
 - 농장에서는 벼랭상모판준비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. 일꾼들이 현장에 나가 모판만들기, 종자처리장보수, 물확보 등을 제때에 끝내도록 노력하고 있음.
 - 씨뿌리기 준비에서는 제7작업반이 앞장서고 있음. 이곳 작업반원들은 바람막이 비닐과 활창대를 비롯하여 씨뿌리기 준비에 필요한 자재를 짧은 기간에 마련해 놓았음.
- 벼랭상모판씨부리기 한창 (로동신문 3.28)
 - 황해남도의 농촌에서 벼랭상모판씨부리기가 한창임.
 - 황해남도에서는 도 일꾼들이 씨뿌리기와 관련한 영농사업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 청단군 청정협동농장에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시와, 군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뿌리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.
 - 씨뿌리기 준비를 빈틈없이 해온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,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비롯한 영도업적단위가 씨뿌리기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.
 - 송화, 삼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농업근로자들도 논벼종자의 싹틔우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면서 자체로 모판만들기를 앞세우고 씨앗을 정성껏 뿌리고 있음.

2. 밭농사

강냉이

- 영농기술과 방법을 실정에 맞게 (로동신문 3.21)
 - 지난 기간 대관군에서는 해마다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를 5월 초에 했는데 그때마다 가뭄이 시작되어 초기생육이 적지않은 지장을 받았음.
 - 가뭄에도 견디고 낮은 기온에서도 안전하게 강냉이농사를 짓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

진거름과 부식토, 린회토 등을 이용한 영양단지를 만들어 강냉이농사를 하면 산간지대에서도 알곡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.

- 군에서는 이 경험을 모든 농장에서 적극 본받도록 하였음. 그에 따라 모든 농장에서는 이처럼 질 좋은 영양단지를 만들어 모를 실하게 키워냄으로써 지난해 강냉이 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거둠.

3. 감자농사

□ 감자농사 정책

- 감자위주의 두벌농사 (로동신문 3.18)
 - 감자종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감자종자 싹틔우기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. 감자종자를 싹틔워 심으면 싹이 7일 정도 더 빨리 자라고 초기 생육이 왕성해지므로 알달리는 시기와 여무는 기간을 10~15일 정도 앞당겨 정보당 수확고를 20% 정도 높일 수 있음.
 - 감자종자 랭상처리도 기술적으로 해야 함. 랭상처리를 잘하여 튼튼한 모를 옮겨심으면 감자가 초기부터 잘 자라고 생육기일을 1주일 이상 앞당겨 수확고를 18% 정도 높일 수 있음.
 - 감자위주의 두벌농사로 방향이 전환되어 앞그루 감자농사면적이 늘어난데 맞게 이른 봄밀식모판재배에 의한 감자종자생산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. 또한 전국의 농촌에서 감자종자저장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.
 - 전국적으로 감자종자저장고 건설이 끝나면 감자위주의 두벌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임.

□ 두벌농사

- 두벌농사준비를 실속있게 (로동신문 3.1)
 - 장강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군의 농업부문 일꾼, 근로자들은 지난해보다 두벌농사면적을 늘린데 맞게 농사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음.
 - 읍협동농장, 장평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두벌농사포전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 협동농장에서는 니탄과 질 좋은 거름원천을 찾아내어 두벌농사포전에 실어나르고 있음.
 - 일꾼들은 종포지구에 석회석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수송조직을 배치하여 생산한 석회석을 신성, 성장, 원평 등 여러 협동농장에 보내주고 있음.
 - 협동농장에서는 태양열 온실을 이용하여 북부고산지대의 기후적 특성에 맞게 앞그루 작물인 감자모키우기를 위한 준비를 실시하고 있음.

4. 축 산

홍주닭공장에서 (로동신문 3.14)

- 홍주닭공장에서는 올해 1/4분기 닭알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닭고기와 닭알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
- 공장에서는 배합먹이생산공정의 정보화, 과학화를 실현하고 종금직장에서 사양관리를 닭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. 또한 비육직장의 매 호동의 먹이주기, 온습도 보장설비에 첨단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임.
- 매주 닭의 증체율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사양관리를 기술적으로 하도록 지도사업을 실시하여 닭고기 생산을 늘리고 있음.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에 비해 닭알, 닭고기 생산을 1.2배 높이는 성과를 거둠.

○ 새로운 발효먹이생산방법 도입 (로동신문 3.20)

- 하당닭공장에서는 토착미생물에 의한 새로운 발효먹이생산방법을 도입하여 30%의 배합먹이를 절약하면서도 닭알생산을 정상화하였음.
- 하당닭공장에서는 토착미생물이 가금의 먹이원천으로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토착미생물에 의한 진흙먹이를 생산해내는데 성공함. 진흙먹이는 닭의 몸안에 들어가면 병을 예방하고 소화흡수율을 높여 증체와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함.
- 이 과정에서 토착미생물이 생산성이 높음을 발견하고, 종균을 생산하여 먹이생산을 늘림.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더 많은 닭알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.

5. 농업기반

토지정리, 간석지, 국토관리 사업

○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 및 대계도 간석지 마감단계 (로동신문 3.14)

-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연합기업소에서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과 대계도간석지 내부망공사를 빠르게 추진하여 총공사량의 90% 이상을 수행하였음.
- 연합기업소에서는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공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. 관도지구에서는 공사를 최단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 제방의 안쪽과 바깥쪽 돌입히기를 비롯한 마감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.
- 로하간석지 건설사업소에서는 배수문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.
- 대계도간석지 내부망공사를 맡은 연합기업소에서는 돌입히기공사와 배수문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○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장에서 10만산(m³) 대발과 진행 (로동신문 3.18)

-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장에서 15일 10만산(m³)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.
- 평안북도간석지건설 연합기업소에서는 간석지제방공사에 필요한 돌과 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발파준비를 하고 있음.
-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의 청년건설자들은 하루 수십m씩 굴진을 하여 발파준비를 앞당기는데 기여함.
- 10만산(m³)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일꾼, 건설자들은 6호, 7호 제방공사를 앞당겨 완공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음.

물길공사, 저수지, 물보장 사업

- 연 1만여 km의 자연흐름식물길 완성 (로동신문 3.2)
 - 2002년 10월 개천-태성호 물길이 처음으로 자연흐름식관개체계 본보기로 건설된 때로부터 지난 10여년 간 연 1만여 km의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됨.
 -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되어 이 지역들에서 1,000여대의 양수기, 전동기가 없어서 12만 여 kW의 전기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음.
 - 중소규모 자연흐름식물길은 평원군, 숙천군, 대동군, 개천시, 증산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시, 군과 남포시 안의 군, 구역 등 도처에 건설되었음. 정주시와 룡청군, 염주군, 동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에서도 중소규모물길공사를 벌려 많은 면적의 농지에서 안전한 수확을 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함.
 - 황해북도에서 30여 개 대상의 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냈으며, 개성시에서도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실시해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넉넉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함. 함경남도에서도 근 100km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하여 수천정보의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보장할 수 있게 함.

6. 산림

통나무 생산

-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 수행 (로동신문 3.1)
 -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한달 남짓한 기간에 임업성 산하 20여개 작업소에 서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함.
 - 임업성에서는 올해 들어와 통나무 생산 증대를 위하여 능력있는 일꾼들을 각지 임산, 갱목생산사업소에 내려보내 그들이 생산조직을 지휘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함.
 - 함경남도 임업관리국에서는 일꾼들이 노동자에게 겨울철 통나무 생산이 갖는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나무베기, 사이나르기 등 공정별 작업에 앞장서서 대중을 이끌.
 - 자강도 임업관리국에서도 올해 산지통나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목표를

세웠으며, 룡림임산사업소의 일꾼, 노동자들은 채벌장에서 증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□ 나무심기

- 봄철 나무심기에 역량을 집중 (로동신문 3.12)
 - 각지 당조직, 근로자단체조직의 일꾼들은 봄철나무심기에 당원, 근로자, 청년학생을 비롯한 인민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.
 - 푸른숲은 양묘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한 구성시, 고산군, 회양군, 정평군, 리원군, 벽성군, 은률군, 전천군을 비롯한 각지 시, 군당조직의 책임일꾼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모생산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여 봄철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함.
 - 형제산구역, 사동구역, 서성구역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당조직에서는 도시를 수립화, 원림화하는데 필요한 나무모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봄철나무심기 기간에 거리와 마을, 공원과 유원지에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게 준비함.
-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(로동신문 3.16)
 -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도 거리에 수종이 좋은 10만 수천 그루의 나무심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성과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.
 -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특색있게 설계된 평양시원림록화 형성안에 따라 봄철에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이 사업에 수도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.
 - 나무심기가 시작된지 며칠만에 서성구역과 모란봉구역에서는 도시원림록화계획에 따라 중요거리의 나무심기를 빠르게 해내는 성과를 거둠.
 - 시에서는 나무심기를 계속 해나가는 한편 이미 심은 나무를 정성껏 가꾸는 사업에 시민들을 불러일으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.
- 조국산천에 푸른 숲 우거지게 (로동신문 3.19)
 - 황해남도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산림부문 일꾼들이 올해 산림조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 - 식수절을 계기로 옥계천, 광석천지구에서 일꾼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었으며, 벽성군 산림경영소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음.
 - 재령, 은률, 신원군에서도 앞선 나무모생산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생산함.

□ 나무모 생산

-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 (로동신문 3.2)

- 벽성군산림경영소에서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둠.
- 벽성군산림경영소 일꾼들은 나무를 심을 적지를 확정한테 기초하여 필요한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. 기술일꾼과 함께 해당 단위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함.
- 이와 더불어 봄철나무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작업도구와 포장용기 확보 등 준비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.

7. 기타 작물

□ 과수

- 수십가지의 과일나무 품종 육성 (로동신문 3.19)
 -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사과, 배, 복숭아, 살구, 추리, 포도나무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과일나무 품종이 육성되어 많은 면적의 청춘과원이 조성됨.
 -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 과학자들은 과수업에서 생산을 늘리기 위한 핵심사업을 종자혁명으로 여기고 수십가지의 과일나무 품종을 육성함.
 - 또한 과학자들은 눈접방법, 초밀식재배방법, 가지자르기방법 등을 연구완성하여 과일나무를 널리 육성할 수 있는 전망을 열었음.
 - 세계굴지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인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꾸려진 나무모생산기지에서는 조직배양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자체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음.
- 수천 정보의 과수원에 과일나무 심기 시작 (로동신문 3.29)
 - 과일나무심기가 시작되었음. 각지에서는 수천정보의 과수원에 우량 품종의 과일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 - 과수연합총회사와 농업성에서는 올해 봄철에 전국적으로 수천 정보의 과수원에 키낮은사과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 - 송한, 광산과수농장에서는 새로 조성할 과수원에 정보당 100톤 이상의 거름을 실어낸 기세로 과일나무 심기를 빠르게 해내고 있음.
 - 정주시, 녕변군을 비롯한 평안북도 안의 시, 군에서도 우량품종의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심고 있음. 과일나무모 생산기지를 꾸려놓고 배, 복숭아, 살구 등 여러 가지 과일나무모를 많이 키워낸 이곳에서는 정성을 다해 나무를 심고 있음.

8. 기타 보도 동향

□ 비료, 거름

- 6,200여 톤의 후민산칼리를 생산 (로동신문 3.2)
 -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가기 위하여 황해북도에서는 곳곳에 후민산(뭍은 알카리에 풀리고 무기산과 작용시 앙금으로 가리얏는 토양부식질의 한부분)칼리 생산기지를 세우고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.
 -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한달 남짓한 기간에 수만 정보에 널 6,200여 톤의 후민산칼리를 생산하는 혁신을 이루어냄.
 - 황해북도에서는 지난 시기 집짐승의 배설물을 이용한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기지를 세우고 많은 후민산 칼리를 생산하여 덕을 보고 있는 황주군의 경험에 기초하여 사리원시에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건설함.
 - 사리원시에서 올해 근 600여 톤의 후민산칼리를 자체로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미국 협동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농장의 모든 작업반마다 생산기지를 꾸리도록 하고 있음.
- 거름실어내기 94% 개선 돌파 (로동신문 3.13)
 - 3월 11일 현재 전국적인 거름실어내기 실적이 94%를 넘어섬.
 - 벽성군, 신원군, 봉천군, 청단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하루실적을 2배 이상 올리고 있으며, 최근 도적으로 하루에 수만 톤의 질 좋은 거름이 논밭에 실려나가고 있음.
 - 평안북도에서는 3일 하루동안에만도 2만 수천 톤의 거름을 실어냄. 동림군, 태천군, 룡천군, 광산군에서는 거름원천을 모조리 찾아내면서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거름실어내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.
 - 평안남도에서는 거름실어내기 계획을 150% 이상 넘쳐 수행함. 평성시, 안주시에서도 거름실어내기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.